

TDB경기동향조사(전국) - 2016년 4월 조사 -

2016년 5월 9일

주식회사 테이크데이터뱅크 <http://www.tdb.co.jp/>

경기동향 조사전용HP <http://www.tdb-di.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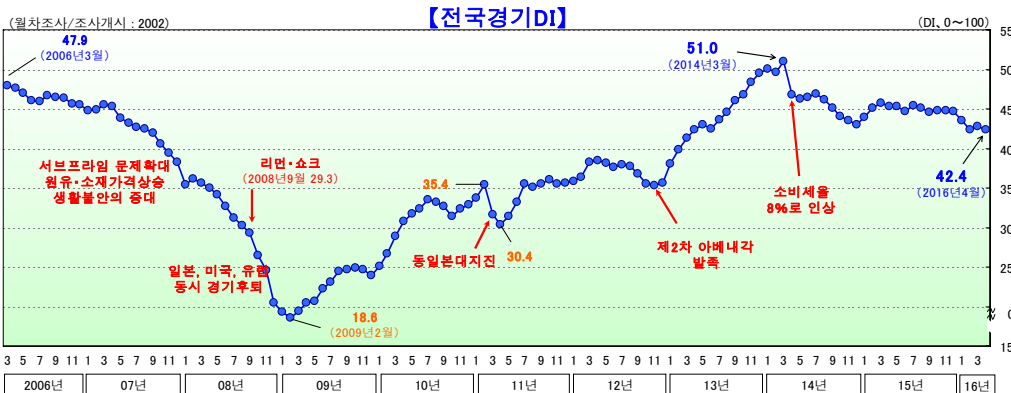
저조한 경기에 쿠마모토 지진이 치명타

~ 천재(天災)와 인재(人災)로 인한 기업리스크 표면화 ~

(조사대상 2만3,432사, 유효회답 1만246사, 회답률 43.7%, 조사개시 2002년5월)

조사결과 포인트

- 4월의 경기DI는 전월 대비 0.4포인트 감소한 42.4가 되어 2개월 만에 악화되었다. 인건비나 높은 원료가격 등 기업의 코스트부담이 서서히 상승한 이외에도 자동차부품, 전기기계 등의 생산관련이나 관광관련에 쿠마모토 지진으로 인한 영향이 미쳐 국내경기는 다시 악화되었다. 향후의 경기는 회복을 향한 호재료가 부족한 가운데 답보상태로 추이할 것으로 보여진다.
- 업계 별로는 『건설』 『제조』 『운수·창고』 『서비스』 등 7개 업계가 악화, 『농·임·수산』 『금융』 『소매』의 3개 업계가 개선되었다. 설비투자가 침체된 가운데 쿠마모토 지진이 전국의 자동차나 전기기계 등의 생산에 악영향을 끼쳤다. 『전통여관·호텔』은 동일본대지진 이래 대폭 악화되었다.
- 지역 별로는 『홋카이도』 『토호쿠』를 제외한 8개 지역이 악화되었다. 그 중에서도 『큐슈』는 지진으로 인해 지역의 대동맥이라고 할 수 있는 큐슈자동차도(九州自動車道)가 일부 통행금지가 되어 지역 내 물류기능이 크게 저하되었다. 『충고쿠』는 자동차의 연비데이터 부정 문제로 인하여 자동차 관련 산업에 영향을 끼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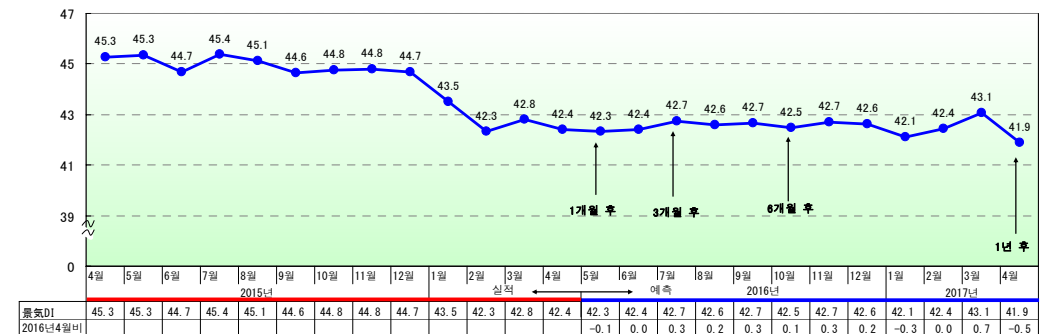
<2016년 4월의 동향 : 악화로 전환>

2016년 4월의 경기DI는 전월 대비 0.4포인트 감소한 42.4가 되어 2개월 만에 악화되었다.

4월은 쿠마모토 지진으로 인하여 숙박예약의 취소가 잇따른 이외에도 여러 도로들의 통행이 금지되는 등 물류기능의 저하가 불가피하였다. 또한 기업들이 설비투자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대형 자동차 제조사에 의한 연비데이터 부정 문제나 전자부품의 수주감소도 더하여져, 국내경기가 잘 풀리지 않는 요인이 되었다. 게다가 가솔린가격의 7주 연속 상승이나 높은 원료가격에 동반하는 강재(鋼材)가격의 상승, 인력부족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 등 기업의 코스트부담은 서서히 고조되고 있다. 한편, 공공공사나 주택착공은 증가하였지만 전체를 건인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다. 기업이 다양한 리스크를 안고 있는 가운데, 제조나 관광관련 등을 중심으로 쿠마모토 지진이 치명타를 가하여 국내경기는 악화로 전환되었다.

<향후의 전망 : 답보상태로 추이>

향후의 국내경기는 10%로 인상되는 소비세율의 행방 외에도 쿠마모토 지진의 재빠른 복구·부흥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진다. 자동차, 전자부품 등의 생산이 정지된 공장의 본격적인 가동이나 큐슈 전역의 관광수요 회복이 열쇠가 된다. 또한 가계수입 및 지출은 제자리걸음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장기화된 개인소비 침체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소비세율 인상의 재연기를 포함한 경제대책이 요망된다. 해외요인으로는 미국경제나 중국경제의 성장둔화가 리스크가 되는 이외에 외환시세의 동향도 주시할 필요가 있겠다. 한편, 일본 방문 여행객의 증가에 따른 관광소비의 확대는 꾸준한 호재료가 된다. 향후의 경기는 회복을 향한 호재료가 부족한 가운데 답보상태로 추이할 것으로 보여진다.



※경기예측DI는 ARIMA모델에 경제통계를 더한 Structural ARIMA모델로 분석

업계별 : 『전통여관·호텔』이 동일본대지진 이래 대폭악화

·『건설』『제조』『운수·창고』『서비스』등 7개 업계가 악화, 『농·임·수산』『금융』『소매』의 3개 업계가 개선되었다. 설비투자의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쿠마모토 지진이 관광관련 이외 자동차 부품이나 전기기계를 중심으로 한 생산에 악영향을 미쳤다.

·『건설』(45.2)··전월 대비 1.1포인트 감소. 2개월 만에 악화되었다. 자재비의 급등이나 인력부족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 등 수익의 악화요인이 계속되는 가운데, 민간기업의 설비투자는 침체되어 기계기구설치공사나 내장공사, 전기통신공사 등이 악화되었다. 또한 기업 간 수주의 차이가 나타나기 쉬운 개보수(改補修)공사가 많아지는 계절인 점도 있어 체감경기가 이분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지역에 따라 발주상황에 차이는 있으나 공공공사는 전체적으로 증가세를 보여 일반 토목공사 등이 개선된 이외에, 분양맨션이나 임대주택 등의 착공이 증가하여 건축공사 등이 호조를 띄었다.

·『제조』(41.3)··동 0.3포인트 감소. 2개월 만에 악화되었다. 쿠마모토 지진으로 인한 서플라이 체인(부품 공급망)의 단절 등 자동차부품이나 전자부품업계의 가동이 불안정한 한편, 대체생산을 도급 받은 기업이 생산공정에 쫓기는 상태도 일어났다. 중국 등 아시아향 산업을 중심으로 공장 기계나 산업기계의 수출이 대폭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대형 자동차 제조사의 불상사나 스마트폰의 감산(減産) 등도 영향을 미쳐「기계제조」(45.3, 동 0.4포인트 감소)나「전기기계제조」(42.3, 동 0.5포인트 감소) 등 기계관련이 악화되었다. 『제조』는 12개 업종 중 6개 업종이 악화되었다.

·『운수·창고』(41.5)··동 0.4포인트 감소. 2개월 만에 악화되었다. 운전수 부족으로 인건비가 상승한 가운데 원유가격의 완만한 상승곡선으로 가솔린가격이 7주 연속으로 상승하는 등 코스트업요인이 겹쳐졌다. 게다가 여행사나 여행분야 등에서 쿠마모토 지진에 의한 여행객의 감소 이외에, 화물운송에서는 큐슈방면과의 물류거래에 영향을 끼쳤다. 또한 하주(荷主)인 『건설』이나 『제조』의 체감경기가 악화되어 화물이동도 저조하였다. 외항(外航)은 북미나 유럽항 컨테이너운임의 하락이 계속되어 부진한 수익상황 속에 운행이 지속되고 있다.

·『서비스』(47.5)··동 0.7포인트 감소. 2개월 만에 악화되었다. 「전통여관·호텔」(50.5, 동 5.6포인트 감소)은 많은 지역에서 인바운드 수요가 지속되고 있지만 쿠마모토 지진의 영향이 크고 동일본대지진 이래로 대폭 악화되어, 그 중에서 『큐슈』는 리먼쇼크 이래의 가장 큰 악화폭을 보였다. 「리스·임대」(45.9, 동 1.2포인트 감소)에서는 동일본대지진의 복구에 사용되어진 건설기계가 재고과다 상태로 되어가고 있다. 또한 「인재파견·소개」(53.1, 동 1.6포인트 감소)에서는 쿠마모토 지진에 의하여 대형 자동차 제조사를 포함한 재해지 인근 공장의 생산정지 등이 악영향을 미친 이외에, 구인광고가 급감한 「광고관련」(37.5, 동 3.4포인트 감소)도 크게 악화되었다.

	15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6년 1월	2월	3월	4월	전월비
농·임·수산	43.7	45.0	41.9	42.9	44.7	44.7	44.6	45.2	46.4	43.6	44.5	42.3	42.3	0.0
금융	48.1	47.4	49.2	48.1	46.5	46.3	47.3	46.6	46.3	45.3	44.3	44.8	44.8	0.0
건설	49.3	48.6	47.7	48.6	48.8	49.1	49.5	49.6	49.3	47.9	45.9	46.3	46.3	0.0
부동산	48.8	49.6	49.1	49.8	48.4	48.7	48.7	48.9	48.4	47.1	48.0	48.2	48.2	0.0
제조	식음료품·사료제조	42.1	44.3	43.1	43.4	43.0	43.6	44.3	44.5	44.1	44.2	43.2	44.2	0.0
	섬유·섬유제품·장신구제조	40.2	41.7	39.4	39.4	40.2	38.8	39.8	39.4	39.3	36.4	37.6	39.8	0.0
	건축·가구·요업·토석제품제조	40.3	40.9	40.3	41.2	41.2	40.9	40.2	38.9	40.7	38.5	38.0	38.6	0.0
	철도·중이·중이카공물제조	39.8	40.0	39.0	39.7	42.0	40.8	41.1	42.4	41.7	40.3	36.8	37.6	0.0
	출판·인쇄	34.6	34.1	33.5	33.7	34.9	34.8	34.8	34.6	34.7	34.0	34.6	35.3	0.0
	화학제품	44.1	44.4	43.9	44.7	45.3	44.4	44.4	44.9	45.4	44.3	42.8	42.7	0.0
	철강·비철금속·광업	43.9	43.0	42.9	43.6	42.8	41.7	41.4	41.8	41.5	41.1	38.8	38.3	0.0
	기계제조	52.5	51.6	51.3	51.9	50.3	47.3	47.9	47.3	48.6	46.0	45.5	45.7	0.0
	전기기계제조	47.7	47.3	47.4	47.4	44.8	45.2	45.2	45.2	44.9	43.0	42.8	42.8	0.0
	수송용기계·기구제조	51.1	47.8	49.7	50.9	50.8	48.3	46.3	47.0	46.2	45.7	44.6	46.8	0.0
	정밀기계·의료기계·기구제조	47.8	49.8	49.4	50.4	51.2	47.9	48.6	47.9	46.1	46.2	43.1	44.6	0.0
	기타 제조	37.1	40.7	37.8	39.2	37.7	40.0	39.8	40.0	39.6	39.4	39.1	40.6	0.0
	전체	44.4	44.5	44.0	44.6	44.2	43.2	43.3	43.3	43.5	42.2	41.2	41.6	0.0
도매	식음료품도매	42.6	42.9	43.0	44.1	42.7	43.6	43.0	43.1	42.6	41.9	40.9	42.2	0.0
	섬유·섬유제품·장신구도매	35.5	37.0	34.8	34.4	34.7	36.5	37.8	34.4	34.4	33.5	32.7	33.8	0.0
	건축·가구·요업·토석제품도매	38.2	38.7	38.1	39.8	39.7	39.5	41.3	41.5	41.8	40.5	39.1	39.4	0.0
	종이류·문구·서적도매	37.3	38.1	34.5	37.1	36.5	36.8	36.8	37.4	37.2	38.1	37.4	38.0	0.0
	화학제품도매	42.5	43.0	43.1	43.9	42.6	42.3	42.5	42.8	43.2	40.8	39.2	40.2	0.0
	채광자원도매	39.7	42.3	40.1	35.8	36.0	25.8	29.9	26.7	32.1	25.6	28.4	30.7	0.0
	철강·비철금속·광업제품도매	41.2	40.3	39.3	40.4	40.3	38.5	38.8	39.4	37.7	36.4	35.8	36.1	0.0
	기계·기구도매	46.7	46.3	45.1	45.6	45.3	43.6	43.6	43.4	43.6	42.6	41.2	41.7	0.0
	기타 도매	40.9	41.8	42.0	42.4	41.4	40.8	41.0	41.1	41.1	39.9	39.0	39.6	0.0
	전체	42.3	42.5	41.7	42.5	41.9	41.2	41.5	41.4	41.4	40.1	39.0	39.7	0.0
소매	식음료품소매	39.3	41.6	42.7	45.0	44.0	44.5	44.6	41.4	43.2	39.9	40.4	43.4	0.0
	섬유·섬유제품·장신구소매	38.0	40.2	37.0	38.6	38.7	36.9	40.1	36.8	32.1	34.8	31.6	33.3	0.0
	의약품·알콜음료소매	48.1	48.0	48.6	49.3	48.7	46.7	48.6	50.0	49.4	45.3	45.4	46.1	0.0
	가구류소매	35.0	40.0	43.3	41.7	41.7	42.9	42.9	42.9	47.2	42.9	40.5	40.5	0.0
	가전·정보기구소매	38.4	41.5	40.6	38.9	38.3	44.6	39.6	38.7	40.7	43.8	39.2	40.4	0.0
	자동차·중·부품소매	36.5	39.9	37.2	38.3	38.7	38.6	39.9	38.2	37.9	40.0	37.9	38.6	0.0
	전문상품소매	39.4	40.5	38.0	39.9	41.6	40.7	39.2	39.8	38.4	40.4	39.2	37.4	0.0
	각종상품소매	47.1	49.7	48.1	48.8	49.0	47.3	46.5	47.3	43.8	45.0	43.7	44.8	0.0
	기타 소매	41.7	36.1	43.3	35.7	44.4	44.4	36.1	38.9	43.3	44.4	41.7	44.4	0.0
	전체	40.2	42.1	40.7	41.9	42.4	42.2	41.6	40.9	40.2	41.0	39.5	40.1	0.0
운수·창고		44.8	44.8	42.6	44.4	44.9	45.1	44.7	45.4	45.3	43.2	41.9	41.9	0.0
서비스	음식점	50.0	49.6	48.3	47.4	51.3	45.3	49.2	46.2	44.4	47.1	42.1	43.6	0.0
	전기통신	54.2	53.7	50.0	47.0	53.0	59.3	57.6	53.0	51.5	58.3	54.2	50.0	0.0
	전기·가스·수도·열공급	55.0	53.7	53.0	50.0	51.9	56.7	55.0	55.0	52.4	53.7	50.0	50.0	0.0
	리스·임대	49.6	47.9	47.9	48.7	49.9	48.0	48.0	49.2	49.7	48.1	46.2	47.1	0.0
	료칸·호텔	51.4	53.1	54.2	59.2	59.0	58.3	61.4	59.1	55.4	56.9	54.7	56.1	0.0
	오락서비스	38.7	40.2	37.9	37.3	38.0	37.9	38.0	38.0	38.6	39.1	37.3	36.6	0.0
	방송	47.9	45.6	46.1	49.1	46.1	41.7	45.1	46.9	47.8	43.8	46.9	45.6	0.0
	엔터테인먼트·경마·경사	47.8	48.1	47.4	47.6	47.4	46.0	46.1	47.1	46.4	44.8	43.8	43.9	0.0
	광고관련	42.2	41.1	41.0	39.8	40.7	40.8	40.7	40.3	40.3	39.2	37.2	40.9	0.0
	정보서비스	56.3	55.3	55.4	56.4	55.8	55.5	56.0	54.9	54.9	55.2	53.3	53.4	0.0
	인재파견·소개	55.5	56.2	56.3	54.4	55.0	54.2	54.7	52.5	53.1	50.9	52.7	54.7	0.0
	전문서비스	51.0	51.7	50.9	52.0	51.4	51.5	49.0	50.3	52.1	49.1	48.9	49.6	0.0
	의료·복지·보건위생	46.1	46.3	43.3	45.3	43.6	42.8	42.3	44.1	42.2	39.9	39.2	42.5	0.0
	교육서비스	41.2	41.1	44.4	40.6	44.1	42.1	45.0	50.8	46.7	46.3	46.8	47.4	0.0
	기타 서비스	46.1	46.8	49.5	50.9	48.5	49.3	49.2	50.1	49.0	45.9	47.5	47.1	0.0
	전체	50.1	49.9	49.7	50.4	50.1	49.6	49.6	49.6	49.6	48.4	47.4	48.2	0.0
기타		43.2	40.2	41.9	42.6	40.7	41.4	42.3	41.9	43.8	40.9	39.4	38.8	0.0
격차 (10개업종별『기타』제외)														
	9.9	7.8	9.0	8.5	8.2	8.4	8.1	8.7	9.4	8.3	9.0	8.5	8.5	

※색이 없는 부분은 전월 대비 개선 또는 증가, 황색 부분은 전월 대비 보합, 청색 부분은 전월 대비 악화 또는 감소를 나타냄.

규모별 : 전규모에서 악화, 화물이동 둔화가 중소기업 『운수·창고』에 악영향

- 「대기업」이 46.2(전월 대비 0.3포인트 감소), 「중소기업」이 41.4(동 0.4포인트 감소), 「소규모기업」이 40.3(동 0.5포인트 감소)이 되어 전규모가 악화되었다. 성수기인 연말이 지나고 강제관련의 침체나 출하량감소, 지진재해 등으로 화물이동이 둔화된 점이 영향을 미쳐 『운수·창고』의 「중소기업」이 크게 악화되었다. 「대기업」은 10개 업계 중 7개 업계, 「중소기업」은 6개 업계, 「소규모기업」은 6개 업계가 악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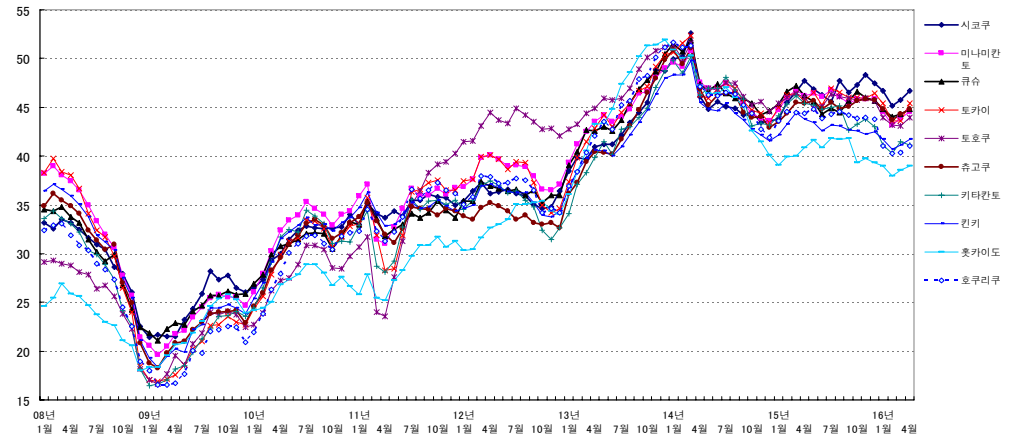
	15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6년 1월	2월	3월	4월	전월비
대기업	48.9	49.2	48.4	48.8	48.9	48.2	48.4	48.4	47.9	47.1	46.0	46.5	46.2	▲ 0.3
중소기업	44.3	44.3	43.6	44.5	44.1	43.6	43.7	43.7	43.8	42.5	41.3	41.8	41.4	▲ 0.4
(그 중 소규모기업)	43.1	43.2	43.1	43.4	43.2	43.2	43.2	43.1	43.3	41.8	40.3	40.8	40.3	▲ 0.5
격차 (대기업-중소기업)	4.6	4.9	4.8	4.3	4.8	4.6	4.7	4.7	4.1	4.6	4.7	4.7	4.8	

※색이 없는 부분은 전월 대비 개선 또는 증가, 황색 부분은 전월 대비 보합, 청색 부분은 전월 대비 악화 또는 감소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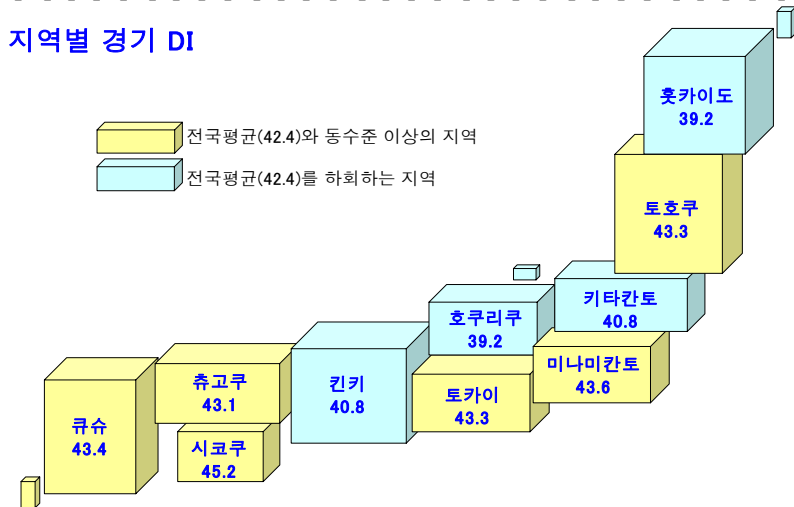
지역별 : 10개 지역 중 8개 지역이 악화, 『큐슈』를 중심으로 불투명한 향후 전망

- 『홋카이도』 『토호쿠』의 2개 지역이 개선된 한편 8개 지역이 악화되었으며, 특히 『큐슈』 및 『호쿠리쿠』에서는 1포인트 넘게 하락하였다. 쿠마모토 지진의 재해지인 『큐슈』를 중심으로 여진을 포함한 지진 자체의 수습이나 향후의 지역경제에 대한 영향을 예측할 수 없어 앞으로의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 『큐슈』(43.4)···전월 대비 0.9포인트 감소. 2개월 만에 악화되었다. 쿠마모토 지진에 의해 큐슈의 대동맥인 큐슈자동차도가 일부 통행금지가 되는 등 역내 전체의 물류기능이 크게 저하된 영향을 받아 『운수·창고』가 3.9포인트 하락하였다. 또한 재해지역 외에서도 숙박예약 취소가 잇따른 「전통여관·호텔」을 포함한 『서비스』가 동 0.9포인트, 자동차부품제조사의 공장재해에 동반한 가동정지 등이 영향을 끼친 『제조』가 동 1.5포인트 감소하였다.
- 『큐고쿠』(43.1)···동 1.2포인트 감소. 2개월 만에 악화되었다. 자동차의 국내판매가 침체된 가운데 대형 자동차 제조사의 연비데이터 부정 문제에 동반하여 일부 차종의 생산이 정지되었다. 오카야마에 해당기업의 경자동차 제조공정이 있는 점 등도 영향을 미쳐 「철강·비철·광업」이 동 2.4포인트, 「자동차·자동차부품 소매」가 동 10.0포인트 감소하는 등 지역내 자동차관련산업에 악영향을 주었다. 그와 더불어 중국항 수출 침체로 인하여 『운수·창고』나 『소매』가 부진한 이외에, 5개 현 중 4개 현이 1포인트 이상 악화되었다.
- 『호쿠리쿠』(39.2)···동 1.2포인트 감소. 2개월 만에 악화되어 2013년 2월 이래 30대로 저하되었다. 공공공사의 침체로 『건설』이 5개월 연속으로 악화, 그 사이 10포인트 가깝게 하락한 점도 영향을 미쳐, 19개월 연속으로 10개 지역 중 최하위인 『홋카이도』와 같은 수준이며 2010년 2월 이래 처음으로 최하위를 기록하였다.

지역별 그래프(2008년 1월부터의 월별추이)



지역별 경기 DI



	15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6년 1월	2월	3월	4월	전월비
홋카이도	40.8	41.6	40.9	41.8	41.8	41.8	39.3	39.8	39.4	39.0	37.9	38.6	39.0	0.4
토호쿠	46.0	44.9	45.0	46.3	46.1	45.9	45.8	45.9	45.6	43.9	43.2	43.1	43.9	0.8
기타칸토	45.4	45.2	44.8	45.0	45.2	42.6	43.3	43.8	43.0	41.1	40.3	41.5	41.1	▲ 0.4
미나미칸토	46.2	46.5	46.1	46.8	46.1	45.4	45.8	45.8	45.8	44.6	43.2	43.9	44.6	0.7
호쿠리쿠	44.4	44.8	43.8	44.3	44.6	44.2	43.9	43.9	43.8	41.1	40.3	40.4	41.1	0.7
토카이	45.6	46.5	45.3	46.9	46.5	46.0	46.0	45.9	46.4	45.4	43.6	43.6	45.4	1.8
킨키	43.7	43.4	42.6	43.2	43.1	42.7	42.6	42.3	42.5	41.7	40.7	41.1	41.7	0.6
큐고쿠	45.4	45.6	44.8	45.5	44.9	45.0	45.6	45.8	45.8	44.8	43.7	44.3	44.8	0.5
시코쿠	47.7	46.9	46.3	45.6	47.7	46.5	47.3	48.3	47.5	46.7	45.1	45.7	46.7	1.0
큐슈	46.2	45.6	44.3	44.9	44.5	45.7	46.6	46.0	45.6	44.8	44.0	44.3	44.8	0.5
격차	6.9	5.3	5.4	5.1	5.9	4.7	8.0	8.5	8.1	7.7	7.2	7.1	7.7	

※색이 없는 부분은 전월 대비 개선 또는 증가, 황색 부분은 전월 대비 보합, 청색 부분은 전월 대비 악화 또는 감소를 나타냄.